에드푸 신전은 호루스 신상과 파라오를 통하여 상징 조작하였습니다.

그 결과 그리스의 이집트 통치의 정당성과 절대성을 확보하였습니다.

에드푸 신전은 상징 조작을 위해 이집트 전통 신전 양식에 그리스 전통 양식을 혼합한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해당 양식은 상징 조작이 필요 없는 시기부터 모두 훼손했으며 이를 보아

상징 조작은 통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 주변에서도 에드푸 신전의 호루스 신상과 파라오 같은 상징

조작의 사례를 쉽게 찾아 볼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상징 조작의 대표적인 사례에는 언론의 핫키워드 ‘MZ세대’, ‘노동조합’, ‘북한’ 등이 있습니다.

최근 언론 및 미디어에서는 ‘MZ세대’가 빠지지 않고 등장합니다.

MZ세대들의 특징, MZ세대들의 사회생활, MZ세대들의 혼밥, MZ세대들의 유행, MZ 세대들의 예절 등등

자세히 살펴보면 MZ세대와 관련이 없거나 원인이 MZ세대가 아닌 것이 대부분이지만 언론은 항상 MZ세대를 강조합니다.

‘노동조합’이 진행한 시위로 인해 시민이 겪게 된 불편함, 노동조합의 재정적 문제, 노동조합 파업의 문제점 등등을 언론에 자주 비치며

노동조합은 기업의 발전을 저지하는 장애물로, 기업은 국고를 채워주는 착한 이미지를 심어줍니다.

‘북한’이 주적임을 공표하고 국방백서 내용 수정합니다.

언론과 미디어에서 위와 같은 키워드를 강조하여 상징 조작을 행하는 이유는 세대 간 정치 이념 차이로 인한 지지 정당과 지지 후보의 차이를 이용하여 정치적 이득을 취하기 위함이며 대한민국은 지금도 정치적 이득을 취하기 위해 상징 조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평소에 좋고 나쁘다고 느끼는 것들이 모두 정치적 이익과 관련된 상징 조작일 수도 있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언론과 미디어 등 기사를 볼 때에는 착하다/나쁘다와 같이 흑백논리로 바라보고 편향된 기사를 찾아보는 것 보다는 교차검증을 습관화해 기사의 팩트만보아야합니다.